

8m2cm를 날았다... 한국 육상의 희망을 보았다

광주시청 김덕현 멀리뛰기 결승진출



1일 오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멀리뛰기 예선 3차 시기에서 한국의 김덕현이 착지하고 있다. 김덕현은 3차 시기에 8m2를 뛰어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전체 11위...한국 멀리뛰기 사상 처음
“주종목 세단뛰기도 결승 꼭 오르겠다”



한국 육상의 에이스 김덕현(26·광주시청)이 희망을 띄웠다.

김덕현이 1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멀리뛰기 예선에서 8m2로 전체 11위를 기록, 12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록(8m2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국 멀리뛰기 사상 첫 결승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김덕현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 중 예선을 거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이기도 하다.

남자 200m 경보에서 김현섭이 6위로 들어오며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예선 없이 바로 결승을 치르는 레이식였다.

김덕현에게는 대회 두 번째 결승진출이다.

김덕현은 지난 2007년 오사카 대회에서는 세단뛰기에서 결승에 진출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멀리뛰기로 결승무대에 오르면서 두 종목 결승진출의 기록도 세웠다.

1차 시기에서 7m86을 뛴 김덕현은 2차 시기에서는 7m99m를 기록했다. 3차 시기에서는 8m2까지 뛰면서 전체 11위로 결승에 무대에 오르게 됐다.

김덕현은 “끝까지 긴장하고 아슬아슬했는데 결승에 진출하게 돼 기분이 좋다”며 “일정이 빡빡하기는 하지만 한숨 돌린 만큼 최선을 다해 결승을 치르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지난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8m11의 기록으로 멀리뛰기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덕현은 2일 오후 7시20분에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에 도전한다.

하지만 2일 오전 10시30분 세단뛰기 예선까지 소화해야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2009년 멀리뛰기에서 8m20으로 한국기록을 수립한 김덕현은 세단뛰기에서도 17m10으로 한국기록을 가지고 있다. 주종목은 세단뛰기로 이번 대회에서도 세단뛰기에 더 공을 들였다.

김덕현은 자신의 한국기록은 물론 아시아 기록(17m59)을 넘어 세단뛰기 결승무대까지 넘보겠다는 각오다.

/대구=한신협공동취재단

男 1600m 계주 13년만에 한국新

3분04초05 기록

결선진출에 실패

한국 남자 1600m 계주팀이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부진에 빠진 한국 선수단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박봉고(20·구미시청)-임찬호(19·정선군청)-이준(20·충남대)-성혁제(21·성결대)가 이어 달린 대표팀은 1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예선 A조에서 3분04초05를 찍었다.

미국, 자메이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강호와 섞여 뛴 바람에 가장 늦은 8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1998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3분04초44)을 13년 만에 훌



1일 오전 남자 1600m 계주에서 3분04초05를 찍어 한국 신기록을 세운 임찬호(왼쪽부터), 성혁제, 박봉고, 이준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갈라치우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특히 계주팀은 대회를 앞두고 겨우 보름간 호흡을 맞춘 끝에 한

국기록을 바꿔 앞으로 계주가 전체에 빠진 한국 육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피스토리우스 1600m 계주 결승 진출 “꿈을 이뤘다”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4·남아공)가 결승 진출의 꿈을 이뤘다.

피스토리우스는 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600m 계주 예선에서 남아공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2분59초21의 자국 신기록에 힘을 보태며 결승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남자 1600m 계주에 출전한 피스토

리우스는 팀의 1번 주자로 1번 레인에 섰다. 바통터치 과정에서 의족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 우려 때문에 바통 터치를 한 번만 하면 되는 1번 주자로 또 접촉이 달한 1번 레인에 배정받은 것이다.

지난 400m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 스타트는 늦었지만 중반 이후 속도를 내면서 2번 주자 오픈즈 모가

웨인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그리고 팀의 마지막 주자 세인 빅터가 2분59초21의 기록으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결승 진출이 확정됐다.

피스토리우스는 “결승에 오르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다”고 결승 진출 소감을 밝혔다.

/대구=한신협공동취재단

오늘 ‘번개’ 친다

볼트 200m 출전

세계신기록 기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7일째인 2일에는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남자 100m 결승에서 부정부패로 실격을 당했던 볼트는 2일 오전 11시10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m 1라운드

에 출전해 명예회복을 노린다. 1라운드를 통과하면 오후 7시55분 열리는 준결승에 진출해 성적이 따라 3일 오후 8시55분 열리는 결승전 출발선에 설 수 있다.

100m 외에 200m 세계기록(19초19)도 보유한 볼트는 이번 시즌에도 200m에서 19초86을 찍어 니켈 애쉬미드(자메이카·19초95)를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100m 결승에서와 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볼트가 무난히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는 볼트는 100m 결승 이후 나흘간 경기가 없었기에 컨디션을 최고



우사인 볼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볼트가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물가물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